

투데이칼럼

미국-중국 60% 관세 협상 시작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60% 관세가 부담스러운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트럼프가 공언한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10%의 일괄 관세, 그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의 관세가 현실화하면 시행 첫해에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1.2%p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 관세 카드를 내밀었지만, 얼마든지 조정될 여지가 있다. 중국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세를 율탈 가능성과 이로 인해 2기 무역 전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내부적 대응책의 초점은 내수 살리기에 있다. 자동차·가전제품 등 넓은 소비재를 버리고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른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통화정책의 규모를 늘리고 채무에 시달리는 지방정부를 위해 10조 위안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내수가 침체하며 과잉



정복규
논설위원

생산으로 남아도는 물건을 해외에 저가로 팔아치운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본래 규모로 만든 중국 시장이 최대다. 중국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이 지점으로, 얼어붙은 투자와 소비 심리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고율 관세가 현실이 될 경우 내수 경기 회복이 선행되지 않으면 수출 타격을 상쇄하기 어렵다. 현재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농촌 주택부지 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 100여 곳의 시범 구역을 지정해 동일 현 내에서는 다른 마을 주민끼리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제약을 일부 풀여준 상황이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을 뿐 이른 시일 안에 전면 개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질 수요를 고려할 때 호응성에 의구심을 보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중국 정부는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더 직접적인 충격 완화 카드를 고려중이라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고율 관세 대응을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일부 이종음도 품목의 대미 수출을 금지하는 등 자위 무기화의 조짐도 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자원으로는 희토류를 꼽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을 계속 압박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군이 희토류를 무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희토류는 반도체의 주요 소재인데, 희토류 수출을 막으면 중국도 손해를 보게 돼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전방위적이다.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트럼프 1기 때보다 과학 기술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체급이 더 올라간 중국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2기 내각 주요 인사들은 대중 강경파로 채워졌다. 중국 당국은 '무역 전쟁에 승자는 없다'는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디커플링의 담장을 높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개방의 가치를 든 중국 당국의 명분이기도 하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는 중국의 구호는 지난 바이든 정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문을 닫아걸고 담장을 높이는 반면 중국은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는 게 중국이 늘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는 외자 기업들은 출혈이 탈중국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이 외치고 있는 '개방'의 구호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2차 무역전쟁 결과에 달려 있다.

사설

초고령사회 진입

한국은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4년 주민등록 전체 인구는 5121만 7221명이다. 연령 계층별로는 0~14세 유소년인구가 546만 4421명,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49만 6018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25만 6782명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광역시·도는 전남(27.20%), 경북(26.04%), 강원(25.30%), 전북(25.20%), 부산(23.90%), 충남(22.20%), 충북(21.99%), 경남(21.82%), 대구(20.87%) 등 9곳이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고령화가 더 심각하다. 65세 이상 인구 중 수도권 거주 인구는 461만 6620명, 비수도권 인구는 564만 162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 3542명 더 많았다. 226개 시·군·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곳은 경북 의성군(47.48%), 대구 군위군(47.32%), 전남 고흥군(45.69%), 경남 합천군(45.26%), 경북 청도군(44.27%) 순이었다. 세대 구성원이 1명인 1인 세대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2024년 1인 세대의 연령대별 비중은 70대 이상이 20.46%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거주 1인 세대는 30대(20.80%), 20대(17.11%), 70대 이상(16.55%), 60대(16.53%) 등의 순이었다. 초등학교 입학 대상 인구는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할 2018년 출생 6세 인구는 33만 4145명으로 2023년의 36만 4740명보다 3만 595명(8.39%) 줄었다.

제29회 천지 사우회 사진전

제29회 '천지 사우회' 사진전이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 덕진구 송천새마을금고 1층 갤러리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번 사진전에 참석한 회원은 모두 12명이다. 국장호 '선암사 문과 매화꽃', 전종권 '무지개 정원', 양철근 '궁전문 2', 이상수, 김경식 '쌍목의 문', 이준모 '개암사 대웅전, 응진전 문', 신동영 '매화의 벗', 김성희 '허니문', 노준철 '사냥의 문', 오정주 '27 레코드', 박정근, 함미경 회원 등이다. '천지 사우회'는 지난 1991년 6월 26일 창립됐다. 창립 이후 그동안 제29회 전시회가 열리기까지 국장호 초대 회장을 비롯 전종권 자문위원 그리고 모든 회원들의 노력이 컸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천지 사우회'는 제25회 전시회를 지난 2021년 3월 전북 익산역 서부통로 전시장에서 개최한 바 있다. 주제를 전달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다중노출 기법을 채택해 '중첩된 빛의 울림'을 주제로 했다. 온라인 전시를 통해 1차 선보이고 이후에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익산역 서부통로 전시장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당시는 전례 없는 코로나가 계속되던 때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술인들의 멈춤 없는 창작과 발표를 통한 문화 응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천지 사우회'는 이런 여건에서 대중에게 회원들의 작품을 오프라인에서 선보였다. 당시 오정주 회장은 "최종 이미지의 형상을 되새기며 빛을 중첩시키는 과정 속에서 사진 예술 표현에 성큼 다가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창작 작업을 하며 설레었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전시장을 개장하는 마음으로 이 장을 펼친다."고 전시회 소감을 전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백악관 전통’ 서랍에 서명하는 해리스 부통령



키멀라 해리스(왼쪽) 부통령이 지난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내 아이젠하워 행정청사 부통령 의전 사무실에서 남편 더그 엘호프가 사진을 찍으며 지켜보는 가운데 백악관 전통에 따라 서랍에 서명하고 있다. 20일 퇴임을 앞둔 해리스 부통령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1940년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인 '서랍 서명'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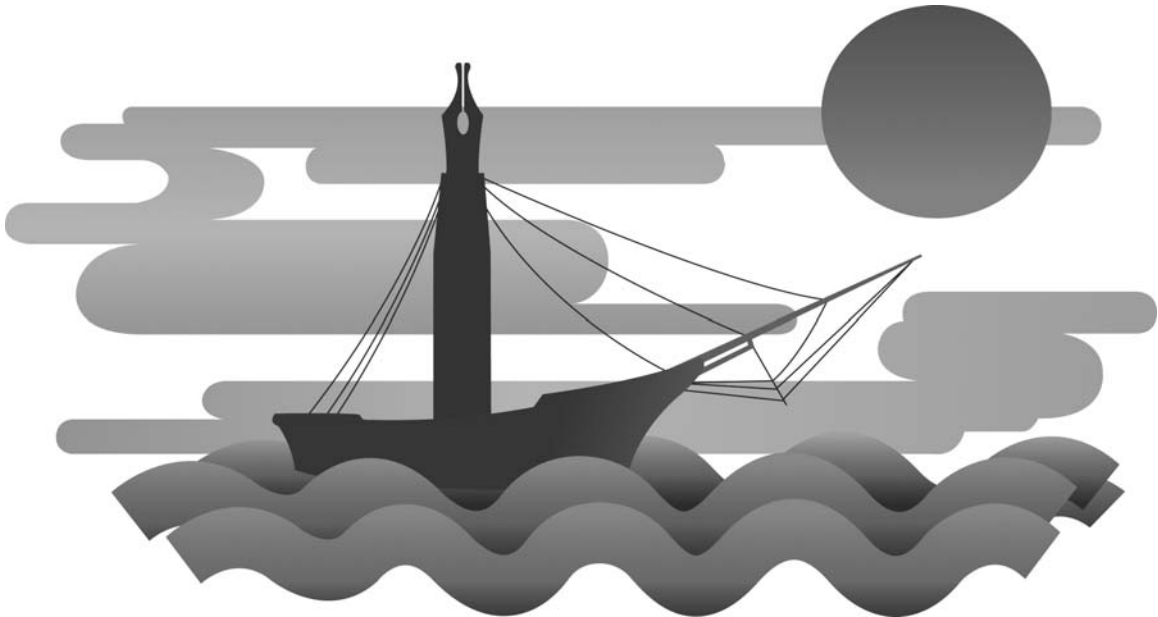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되는 스페이스X 스타십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 텍사스주 보카치카의 스타베이스에서 스페이스X의 메가 로켓 스타십이 7차 시험 발사되고 있다. 이날 스타십의 1단 로켓 부스터 '슈퍼 헤비'는 귀환했으나 2단 로켓·우주선 '스타십'은 통신이 끊기면서 실종돼 시험 발사에 실패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